

김광주 『정협지』의 대중성 확보 전략 연구 –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고훈^{*}

1. 서론
2. 김광주의 작품 연구 동향
3. 『정협지』와 디아스포라
4. 결론

국문요약

1961년 김광주는 경향신문에 『정협지』를 연재했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무협소설’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접하게 된다. 이미 홍콩무협영화를 통해 중국을 배경으로 한 활극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정작 무협소설이라는 장르는 대중들에게 친숙한 것이 아니었다. 1963년까지 연재를 하면서 김광주는 무협소설 작가로서 제2의 작가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김광주의 무협소설 『정협지』는 1960년대 이전까지 대중들에게 생소한 장르였던 무협소설을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케 한 작품으로 기록된다. 『정협지』의 작가 김광주의 초기 작품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어 그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광주의 후기(後期) 소설에 해당하는 무협소설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정협지』는 등장인물 개인의 디아스포라 서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경쟁관계’, ‘연적’, ‘비급쟁탈전’과 같이 대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강사.

를 덧붙여 풍성한 서사를 구성하면서 대중성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 여기에 독자의 디아스포라 체험이 결합되면서 『정협지』는 상승효과를 보게 되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무협소설은 장르 그 자체로 디아스포라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었다. 본 연구에서 무협소설이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무협소설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일조할 것이다. 지금까지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무협소설과의 관계를 밝히는 시도는 전무했다. 이 작업은 편중된 디아스포라 연구를 대중서사의 측면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겠다.

(주제어: 김광주, 경향신문, 『정협지』, 무협소설, 디아스포라, 대중성 확보 전략)

1. 서론

김광주는 1961년 경향신문에 『정협지』를 연재하면서 '무협소설'이라는 생소한 장르를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대중들은 이미 홍콩무협영화를 통해 중국을 배경으로 한 활극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정작 무협소설이라는 장르는 친숙한 것이 아니었다.¹⁾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정협지』를 연재하면서 김광주는 무협소설 작가로서 제2의 작가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1) 장철과 호금전으로 대표되던 구파검극영화는 장철과 왕우를 통해 신파검극영화로 변화하고 신파검극영화의 대표작인 〈독비도〉가 국내에 소개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차기작 〈독비도왕〉도 큰 인기를 얻자 충무로에서는 〈독비도〉 시리즈의 아류인 '외팔이 시리즈'를 대거 제작하기도 했었다. 정창화 감독은 홍콩의 쇼브라더스에 스카우트되어 〈천면마녀〉를 제작하는 등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의 영화시장은 홍콩무협영화의 시기였다.

1960년대 이전까지 대중들에게 생소한 장르였던 무협소설을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케 한 작품이 바로 김광주의 『정협지』이다. 한때는 한국 최초의 무협소설이라는 명성이 붙었으나 이제는 한국에서 대중들에게 무협소설을 가장 대중적으로 알린 작품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최초’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무협소설이라는 장르의 대중적인 입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협지』가 지니는 문학사적 위치다. 비록 ‘최초’라는 수식어가 적확하지는 않지만 ‘무협소설을 대중적 장르로 인식하게 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²⁾ 본 연구는 『정협지』가 몇몇 전략을 통해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무협소설이란 장르의 대중성 확보에 기반이 될 수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문학사에서 무협소설을 대중적 장르로 자리매김한 작품으로 『정협지』가 새롭게 자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협지』의 작가 김광주의 초기 작품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어 그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광주의 후기(後期) 소설에 해당하는 무협소설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무협소설은 인기있는 연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정협지』의 화소분석이나 『정협지』와 대중문화와의 상관성을 밝힌 연구 정도

2) 이진원은 『한국무협소설사』를 통해 김광주의 『정협지』가 ‘최초의 번안 무협소설’이라 규정했다. 이렇게 규정하기 전까지 『정협지』는 단순하게 ‘한국 최초의 무협소설’이란 수식어가 붙었었다. 이후 고훈은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연구』(『대중서사연구』 29, 2013, 173쪽.)를 통해 1934년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동아일보』 연재)이 최초의 번안 무협소설임을 밝혔다. 이 연구 결과로 인해 김광주의 『정협지』에 대한 ‘최초’라는 수식어는 ‘무협소설을 대중적 장르로 인식하게 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수식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한편 1931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맹천(박건병)의 〈강호기협전〉은 평강불초생의 〈강호기협전〉을 번역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 최초의 번역 무협소설이다.

이다. 본 연구는 전기 소설 연구에서 집중한 디아스포라가 『정협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정협지』는 김광주를 대중적 작가로 부각시킨 작품이다. 『정협지』가 무협소설로서 대중에게 자리 잡게 된 여러 이유 중 그의 작가적 체험이 반영된 디아스포라가 대중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작용했음에 주목한다. 그럼으로써 김광주의 후기 작품의 출발점인 『정협지』가 초기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디아스포라’의 흔적을 계승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대중적 인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음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무협소설 장르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2. 김광주의 작품 연구 동향

김광주 작품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1930년대 중국(상해) 거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 대한 연구와 해방 이후 작품에 관한 연구이다. 김광주는 시, 소설, 영화, 연극, 번역, 비평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 역량 있는 작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뚜렷한 이념적 노선을 밝히지 않은 그의 행보와 이른바 ‘대중문학’의 영역으로 나아간 그의 이력으로 인해 한국 문학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2000년 이후 대중 문학의 영역으로 연구 범위가 넓어지면서 김광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진다.³⁾

이렇게 전기(前期), 후기(後期)로 구분되는 그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전기에 해당하는 연구로는 상해 거주 체험과 결부한 그의 사상과

3) 김은하, 「김광주 문학연구(1932-1953): 상해 체험의 문학적 변용과 아나키즘 수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3쪽.

작품에 관한 연구 및 중국 문학 비평이나 번역 그리고 영화비평에 관한 연구다. 민족주의 경향과 독립운동으로서의 작품 연구와 '모던 상하이' 표상 발견을 통한 근대 도시 문화적 특징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 중문학자들은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상해로의 '월경(越境) 체험'의 의의에 주목하기도 했으며 중국 현대문학과의 영향관계를 살피기도 했다. 또한 그의 작품과 중국 체험을 아나키즘과의 영향관계를 통해 살피는 연구도 있었다.⁴⁾

후기 작품에 관한 연구로는 해방기와 한국 전쟁기 작품연구, 세태소설, 신문소설에 관한 연구와 무협소설에 관한 연구가 있다.⁵⁾

4) 김광주 전기(前期) 연구에 관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서은주,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모던 상하이'의 표상: 김광주의 문학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0, 2008; 최병우,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연구」, 『한중인문학 연구』 25, 2008; 최병우, 「김광주의 상해 체험」,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08; 박남용·박은혜, 「김광주(金光洲)의 중국 체험과 중국 신문학의 소개, 번역과 수용」, 『중국연구』 47, 2009; 박자영, 「1930년대 조선인 작가가 발견한 어떤 越境의 감각」, 『중국어문학논집』 83, 2013; 진아위, 「김광주 상해 체험소설에서 나타난 도시 공간」, 『어문논총』 28, 2015; 김철, 「중국 현대 문예 매체에 발표된 김광주의 문예 비평에 대한 소고—신 발굴 중국어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7, 2015; 홍석표, 「김광주의 현대 중국문예 비평과 루쉰(魯迅) 소설의 번역」, 『중국문학』 87, 2016; 김명섭, 「1930년대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아나키즘 인식」, 『사학지』 52, 2016; 진저(金哲)·정칭타오(莊慶濤), 「상하이 <신보(晨報)> 문예면에 게재된 김광주의 영화소개 및 비평에 대한 소고」, 『아시아문화연구』 45, 2017; 김철, 「김광주의 서양문학 인식과 그 전파에 대한 소고—상하이 <晨報>에 게재된 문장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4, 2017; 이양숙, 「김광주 소설에 나타난 탈경계의 의미—1930년대 상하이 체험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17, 2017; 김은하, 「김광주 문학 연구(1932-1953): 상해 체험의 문학적 변용과 아나키즘 수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유예현, 「김광주의 <아방궁>과 <상해시절회상기>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19, 2018; 유우·한상언, 「김광주(金光洲)의 『전영화장법(電影化裝法)』에 관하여」, 『근대서지』 17, 2018.

5) 한명환, 「무협소설의 환상성 고찰: 김광주 '정협지' 화소분석」, 『현대소설연구』 12, 2000; 이영미, 「해방공간의 김광주 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8, 2005; 김동윤, 「김광주의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장미의 침실』·『흑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7, 2008; 조성면, 「김광주의 『정협지』와 1960년대 대중문화」, 『한국학연구』 20, 2009; 최미진, 「한국전쟁기 <경향신문>의 문화면과 김

중국 현대문학 비평과 영화비평을 제외한 김광주의 전기의 연구는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해 배경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유형과 의의를 확인하며 상해 체험을 소설화한 대표작가로 김광주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김광주의 개인 행적을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해 시절 작품을 분석하는 개별 작가론이다.⁶⁾ 그리고 후기의 연구는 『석방인』을 통해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시기에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연구와 신문소설이 세태소설과 무협소설의 과도기적 장르로서 유의미함을 지적한 연구, 그리고 1960년 이후 김광주가 주력한 번안 무협소설에 대한 연구로 첫 작품인 『정협지』를 분석하거나 이 작품을 통해 대중 문화적 의미를 찾는 연구가 있다.⁷⁾

본 연구에서는 후기에 해당하는 세태소설, 신문소설, 무협소설 중에서 무협소설 첫 작품인 『정협지』를 주목하려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광주 작품 연구는 해방 전후로 구분되는데 해방 이전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성과를 보였다. 해방 이후에 관한 연구는 소위 대중문학에 관한 연구가 그렇듯 아직까지는 활발한 연구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문학의 대표적 하위 장르라 할 수 있는 무협소설에 관한 연구는 특히 그러하다. 최근까지 한국 문학에서 김광주가

광주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2012; 전지니, 「김광주의 〈석방인〉(1953)을 통해 본 전후 복구의 문제—〈동방이 밝아온다〉(1951)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6, 2017; 진선영, 「해방기 김광주 '귀환 삼부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8, 2018.

6) 진선영, 「김광주 초기소설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2013, 304-305쪽.

7) 최미진, 「한국전쟁기 〈경향신문〉의 문화면과 김광주의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4, 2012; 김동윤, 「김광주의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 『장미의 침실』·『흑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67, 2008; 조성면, 「김광주의 『정협지』와 1960년대 대중문화」, 『한국학연구』 20, 2009; 한명환, 「무협소설의 환상성 고찰: 김광주 '정협지' 화소분석」, 『현대소설연구』 12, 2000.

무협소설 작가로만 자리한 것에 비하면 김광주와 그의 무협소설 작품에 관한 연구가 2편뿐이라는 점은 대중문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해방 이후 세태소설, 신문소설을 집필했지만 결국 김광주를 무협소설 작가 혹은 대중문학 작가로 대중들에게 인식시킨 작품은 『정협지』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런 점에서 『정협지』는 김광주의 작품세계에 있어서 큰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진선영은 「김광주 초기소설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에서 “김광주의 작가적 출발은 중국 문학 및 비평 이론의 번역으로 시작된다. 김광주는 식민지 조선으로 끊임없이 선진 이론을 실어 나르는 ‘문화 번역자’이자 ‘이산자(離散者)’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⁸⁾고 했다. 김광주의 후기 작품에 해당하는 1960년대 번안무협소설 『정협지』 또한 당시 대중들에게 낯선 장르인 ‘무협’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장르를 한국에 실어 나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기존 무협소설 연구에서 주장한 ‘한국 최초의 번안 무협소설’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대중들에게 무협이라는 장르를 확실하게 주지시킨 점, 그리고 생소한 장르를 대중들에게 전달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즉 진선영이 언급한 “선진 이론을 실어 나르는 문화 번역자이자 이산자”⁹⁾로서의 정체성은 『정협지』라는 작품을 한국 문학계에 소개하면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소설은 조선 디아스포라 집단의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는 분파주의와 개인적 영웅심, 지사 놀이에 대한 환멸로 가득 차 있다. 항일 지사라는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코리맨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코리-상하이인’들

-
- 8) 진선영, 「김광주 초기소설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2013, 304쪽.
9) 진선영, 「김광주 초기소설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2013, 304쪽.

의 향락적인 삶을 거침없이 파헤침으로써 상해 디아스포라 사회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포스트식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것 이 김광주가 모국으로 끊임없이 소설을 실어 나른 디아스포라 글쓰기의 목적이다.”¹⁰⁾

이렇게 김광주는 전기 소설에서 거침없는 대항적 주제의식을 보였다. 후기 소설인 『정협지』는 이러한 대항적 주제의식을 내포한 체 장르적 변모를 시도한다. 김광주의 정신적 지주였던 백범 김구의 죽음, 정권 다툼의 현실과 생활고가 그 이유였다. 조성면도 『정협지』의 탄생 배경으로 작가의 생활고¹¹⁾와 뛰어난 중국어 실력, 신문사의 속성을 간파한 언론사 경력, 김광주의 낭만파적 기질을 들고 있다.¹²⁾ 그러나 장르의 변화만 주었을 뿐 본질적으로 당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환멸과 대항적 주제의식은 변함없었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익에 따라 정치적 노선을 변경하는 정치인들, 남북 대립은 중원 절대고수의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 승양비급을 둘러싼 쟁탈전으로 포장되었을 뿐 사회비판의식은 여전히 작품에 자리하고 있었다.¹³⁾ 그리고 그러한 작가의 비판의식은 작품 곳곳에서 ‘화합’이라는 주제로 대변되고 있다.

10) 진선영, 「김광주 초기소설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2013, 318쪽.

11) 김광주는 1952년 발표한 「나는 너를 싫어한다」를 통해 고위층의 타락과 부도덕함을 고발했다가 린치를 당하기도 하며, 『석방인』(1959)에서 결혼은 무서운 부채며 집이 라며 생활고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린치·생활고에 시달린 그는 『정협지』에서 “남해어부께서는 (중략) 자신만의 마음편한 세계에서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것이 현명지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소.”(『정협지』 5권 67쪽)라며 괴로운 현실로부터 벗어나 안주하고픈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12) 조성면, 「김광주의 정협지와 1960년대 대중문화」, 『한국학연구』 20, 2009, 209쪽.

13) “『정협지』에 그려진 형제간의 갈등은 민주당의 신파·구파의 갈등과 남북의 대립 등에 대한 은근한 비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조성면, 「김광주의 정협지와 1960년대 대중문화」, 『한국학연구』 20, 2009, 204쪽.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너희들 넷이서 각골명심…… 개인의 것을 만들고자 하는 야심을 버리고 송양파의 앞날을 위해 서 합심 협력하여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으로써 송양파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 올리기에 전심전력하여라.”¹⁴⁾

“동굴 벽에 새겨져 있던 네 가지 무예의 술법은 『송양비급』과 더불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서로 장단을 맞추어서 합쳐야만 완벽하고 놀라운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¹⁵⁾

송양파 장로는 네 제자들에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송양파의 앞날을 위해 합심 협력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으며, 동굴 벽에 새겨진 술법도 최고의 무공서인 송양비급과 서로 보완하고 합쳐야만 최고의 기술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광주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염원의 의지를 표현하고 당대 사회를 비판한 것이다. 1952년에 발표한 『나는 너를 싫어한다』에서도 고위층의 타락과 부도덕함을 비판했다가 괴한에게 납치되어 린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¹⁶⁾ 그만큼 김광주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비판적이었던 그의 작가정신은 신변의 위협과 생활고로 인해 장르적 변화를 시도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앞서 조성면이 언급한 ‘신문사의 속성을 간파한 언론사 경력’도 큰 역할을 했다.

김광주는 “이 땅에 중국 무협소설을 소개한 동기는 신문소설의 특성을 고려한 나머지 독자들에게 흡뻑 부어 줄 흥미를 위해서였다.”¹⁷⁾고

14) 김광주, 『정협지』2, 생각의 나무, 2002, 174-175쪽.

15) 김광주, 『정협지』4, 생각의 나무, 2002, 74쪽.

16) “白晝에高官閨中에서/小說家金光州氏를引致毆打/作品『나는 너를 싫어한다』를疑心꼽아” - 『경향신문』 1952.2.20. 2면.

17) 김광주 편역, 『사자후』(동화출판사, 1969), 권 1 참조. 이진원 『한국무협소설사』, 채륜, 2008, 123쪽 재인용.

『사자후』(1969) 〈역자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신문사 재직 시절 이미 신문이라는 매체와 신문소설의 역할을 이해했고 이에 가장 적합한 장르가 무협소설임을 파악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즉 그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재미를 찾을 읽을거리를,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상품성이 있는 쓸거리 모두를 충족할 장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장르로의 변화 모색의 기로에서 상품성을 지닌 대중 문학에 대한 혜안이 있었기에 대중적 장르로의 무협소설을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결국 1961년 경향신문에 『정협지』를 연재하면서 번안 무협소설로 대표되는 후기 작품 시기가 시작된다. 김광주는 의도하지 않았던 무협소설 작가생활을 그리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무정부주의적이고 협객적 기질이 있던 그에게 생활고로 인한 장르 변경은 자신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광주는 1960년대 한국 문단에 호방한 무협의 세계를 선보이며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로부터 한국 무협의 역사가 출발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김광주가 무협소설에서 그려낸 선 굵은 인물형이나 대륙적 기질은 일찍이 작가의 상해 체험에서 얻어진 바가 크며 그때 쌓은 중국어 실력으로 이후 여러 무협 소설을 번안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작가의 상해 체험과 초기소설은 이후 작가의 문단 이력과 후속하는 작품의 세계를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잣대가 된다.”¹⁸⁾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초기소설은 후속 작품세계를 살필 수 있는 기준으로 유용하다. 그러나 이 기준을 이

18) 진선영, 「김광주 초기소설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2013, 318쪽.

용해 전기 작품과 후기 작품과의 연관 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김광주 초기소설에서 드러난 잣대를 활용해 그의 후기 작품, 그 출발점인 『정협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정협지』가 지닌 대중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의 연구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뤄지던 '디아스포라'라는 화두가 1960년대 초기 대중문학 장르인 무협소설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협지』와 디아스포라

강호라는 추상의 공간 속에서 떠도는 군상의 이야기에 무(武)를 빌어 협(俠)을 표출한 것이 바로 '무협소설'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무협 소설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무'와 '협'이 아니라 '떠도는 군상의 이야기'이다. 물론 '무'와 '협'은 본질적으로 무협소설의 기본 충족 조건일 것이다. 이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협소설이라는 장르와 '디아스포라'의 관계를 『정협지』라는 작품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¹⁹⁾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보편적 개념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사전적

19) “이에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연구들은 이주, 차별, 적응, 문화변용, 공동체, 민족문화, 민족정체성 등과 연계한 다양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정치학, 인류학 등에서도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아스포라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문화브랜드 창출, 공동체의 발전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디아스포라학’의 정체성과 학문적 발전을 논하기도 한다.” - 서봉언·이채문, 「키워드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 동향」, 『디아스포라연구』 6, 2014, 44쪽.

의미로서의 디아스포라가 지닌 개념을 큰 변용 없이 사용할 것이다.²⁰⁾ 더불어 “이주민의 ‘이주, 차별, 적응, 문화변용, 동화, 공동체, 민족문화와 정체성 등’의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면서 그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²¹⁾이라는 임춘성의 논지를 확장적 개념으로 추가한다.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는 ‘추방’과 ‘이산’ 혹은 ‘이주’라는 관점에 주목해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개인 서사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추방이나 이주로 인해 타지에서 살게 된 이들의 귀향이 타의에 의해 금지, 지연 혹은 좌절되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기본 플롯²²⁾이라고 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인 무협소설이라는 장르가 지닌 서사구조의 요소와 접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떠돈다’는 말은 곧 방랑·유랑이다. 기본적으로 무협소설은 부모 혹은 사부의 복수, 문파 간 대결, 무공비급·보물 쟁탈전을 기본 서사로 한다. 즉 이야기 자체에 배경 이동이 잦다. 고전소설 특히 영웅소설의 경우 기본 서사에 전쟁, 역모,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주인공이 부모와 이별하게 되는 화소가 항상 등장한다. 이러한 화소는 주인공에게 시련을 부여하고 이를 극복하고 영웅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한다. 무협소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련을 통해 강호의 고수로 성장하는 서사가 주를 이룬다. 정동보가 추출한 무협소설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 “본디 디아스포라는 ‘바빌론 유수(幽囚) 이후 팔레스타인 밖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 거류지’를 지칭하거나 ‘팔레스타인 사람 또는 근대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어 유대인뿐 아니라 국외로 추방된 소수의 집단 공동체나 정치적 난민, 이민자, 소수 인종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게 되었다.” - 두디피아(dopeedia) 두산백과.

21) 임춘성, 「이주와 디아스포라—중국 영화에 재현된 뉴욕의 중국인」, 『아시아와 디아스포라』, 지금여기, 2009, 89-90쪽.

22) 노승욱,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지형도(地形圖)』, 『한국근대문학연구』 31, 2015, 123쪽.

1. (부모가) 원수에게 실해당한다.
2. 유랑한다.
3. 제자가 되어 입문한다.
4. 무예를 배운다.
5. 복수를 하러 떠난다.
6. 사랑에 빠진다.
7. 좌절당한다.
8. 다시 (상승) 무예를 익힌다.
9. 애정에 변고가 생긴다.
10. 부상을 입는다.
11. 상처를 치료한다.
12. 보물을 얻는다.
13. 악당을 소탕한다.
14. 대업을 완성한다.
15. 은거한다.²³⁾

한명환은 위의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옛날이야기의 의존화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⁴⁾ 즉 기본적으로 무협소설은 ‘유랑’하고 ‘떠남’의 서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민정은 「한·중 무협서사에 드러난 추방의 디아스포라 재현 의미 연구」에서 무협서사는 도식적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추방의 디아스포라 체험을 수용할 수 있는 일말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²⁵⁾ 이러한 주장들은 무협소설의 서사 기저에 ‘디아스포라’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무협 소설은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성격을 지닌 장르인 것이다.

23) 정동보, 「무협소설」,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1999, 243쪽.

24) 한명환, 「무협소설의 환상성 고찰」, 『현대소설연구』 12, 2000, 74쪽.

25) 강민정, 「한·중 무협서사에 드러난 추방의 디아스포라 재현 의미 연구」, 『한국문예 창작』 제8권 제3호, 2009, 5쪽.

『정협지』의 저자 김광주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고 그러한 그의 작가적 체험이 초기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다. 김광주와 『정협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개별 '이동 서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정협지』 등장인물의 이동서사>²⁶⁾

1. 노영탄: 죽을 위기에서 도망 - 사천 정착 - 낙양의 숭양표국으로 이동 - 숭양표국에서 쫓겨남 - 강남 안경으로 이주 - 스승을 따라 강서성 파양호로 이주 - 강호로 나왔다가 응유산으로 이주
2. 악중악: 죽을 위기에서 도망 - 낙양 숭양표국에 기거 - 항주 서천 목산으로 피난 - 황산 동굴로 피난
3. 연자심: 변경으로 피난 - 서주 금사보 정착 - 적화주로 도망 - 항주 서천목산으로 피난 - 응유산으로 이주
4. 감형우: 아버지가 죽자 산동으로 이주 - 납치되어 서주로 이동 - 홍택호로 피난
5. 금모사왕: 변경으로 피난 - 서주 금사보 정착

주인공 노영탄의 경우 부모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난을 가게 된다. 그러면서 형과 이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난'·'이별'이 나타난다. 심지어 낙양의 숭양표국에서는 오해로 인해 쫓겨나기까지 한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추방'의 요소가 보인다. 한명환은 『정협지』의 화소분석에서 이 '내쫓김'이 강화 변형된 것으로 보기도 했다.²⁷⁾ 다른 인물들도 노영탄에 비해 개인 서사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주', '피난', '도망' 등의 디아스포라 요소가 서사에 포함되어

26)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외에도 남해어부 상관학, 악청용 등도 '이주'의 요소가 드러난다.

27) 한명환, 「무협소설의 환상성 고찰」, 『현대소설연구』 12, 2000, 75쪽.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협지』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이주’, ‘도망’, ‘피난’의 형태로 디아스포라의 요소를 보여준다. 각자의 개인서사는 인물상을 형성하는 배경수단으로 사용되며, 개개인의 성장배경과 삶의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각각의 개인서사는 ‘이주’, ‘도망’, ‘피난’ 등의 행위를 통해 헤어짐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이는 단순히 주인공 노영탄의 서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등장인물들의 서사에 고르게 보이며 작품 전체의 밑바탕(I)을 구성한다. 이때 각 개인서사는 각자의 사연을 풀어놓아 그들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디아스포라’ 서사는 경쟁관계, 연적(戀敵), 비급쟁탈의 형태로 얹히면서 더욱 풍성한 서사를 구성한다.(II) 『정협지』 전체 서사(III)의 형성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정협지』의 서사 형성 구조



무협소설은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서사를 지닌 장르였고, 작가의 디아스포라 체험과 결합되어 재탄생된 『정협지』는 오랜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를 체험한 이 땅의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정협지』가 연재되던 1960년대의 한국 대중들은 6.25전쟁을 통해 이산(離散)과 피난(避難)을 몸소 경험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노영탄과 악중악 형제가 피난을 떠나고 그 와중에 이별하는 대목은 감정적 이입이 가능했다. 그렇게 헤어진 형제가 언제 어떻게

상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대중적 인기를 끄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정협지』가 대중적 장르로서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협지』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장르를 시도했다. 그러나 무협이란 새롭지만 새롭지만은 않은 장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협소설의 서사구조는 고전서사의 화소를 활용하고 있기에 친숙한 이야기 구조였다. 무협소설이란 장르 자체도 이미 1930년대부터 『강호기협전』,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등의 작품을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 또한 1960년대 홍콩무협영화가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으면서 대중들에게 무협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니었다. 다만 텍스트로서 무협소설이라는 장르가 낯선 것이었을 따름이다. 이미 당대의 대중들은 무협이라는 것을 향유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협소설이라는 장르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가장 적절한 장르였던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디아스포라’를 활용한 서사였다. 무협소설이라는 장르가 지닌 디아스포라적 특성과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독자적 체험이 결합되면서 ‘상승효과’를 불러왔다. 작가는 스스로 체득한 디아스포라적 감성을 전기 작품들에서 활용한 바 있었으며, 무협소설은 이러한 디아스포라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장르였다. 더욱 이 당대의 대중들은 한국전쟁을 통한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상태였기에 자신들이 겪은 개인적 디아스포라를 『정협지』를 통해 재확인함으로서 노영탄과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쉽게 동일시할 수 있었다.

셋째, 작품 자체의 전략과 더불어 당대 사회상황과의 결합이다. 일종의 작품 외적 상황에 주목하는 접근방식이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4·19

혁명과 민주당분열, 5·16 군사 쿠데타로 요약될 수 있는 혼란기였다. 또 음악감상실 쎄씨봉으로 대표되는 대중음악의 성장과 검열을 위한 영화법 제정 속에서도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 영화산업의 성장, 홍콩 무협 영화의 성공 등 대중문화가 활성화되던 분위기였다. 거기에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를 통한 문화소비가 성장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협지』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들을 통해 사회비판의식을 보여주었다. 무협소설이 지닌 환상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대중들에게 대리만족과 탈출구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가 활성화되고 문화소비가 성장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정협지』의 대중성 확보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중성을 확보하기 좋은 새로운 장르 선택
2. 장르 자체의 속성과 작품 속 디아스포라 개인서사
3. 독자의 디아스포라 체험
4. 당대 사회상황과의 결합

이 네 가지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정협지』는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무협소설은 인기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정협지』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 단행본으로 무려 13회나 간행되었고 베스트셀러의 명단에 빠지지 않았으며,²⁸⁾ 〈쌍룡검〉(1969)이란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박노식이 주연을 맡았다는 점에서도 『정협지』의 높은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28) “고개 든 전작물/62년도 하반기 「베스트·셀러」 - 金藥局의 딸, 金瓶梅, 情俠誌 등이 여전히 「베스트·파이브」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 『동아일보』 1962.12.26, 6면.



〈『정협지』를 영화화한 〈쌍룡검〉 포스터와 1984년 12월 18일자 경향신문 광고〉

4. 결론

지금까지 김광주의 작품세계를 『정협지』를 기준으로 전·후기로 구분해 후기에 해당하는 무협소설 작품과 전기 소설들의 연장지점을 ‘디아스포라’라는 연결고리로 파악해 보았다. 무협소설이란 장르 그 자체는 ‘디아스포라’를 수용하고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랬기에 김광주는 초기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작가적 체험의 일부인 ‘디아스포라’를 계속해서 작품 세계에 담아낼 수 있었다. 무협소설은 대중문학의 하위 장르로 현재까지도 순수문학 연구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 무협소설도 한국문학에 있어서 디아스포라와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장르 자체의 속성과 장르의 문학사적 위치가 유사점을 갖는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김광주가 자신의 체험을 후기 작품인 『정협지』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살펴보았다. 김광주의 전기 작품 속에 드러나는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의식이 후기 작품의 시작인 『정협지』에서

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정협지』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개인서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러한 『정협지』는 작가의 디아스포라 체험과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디아스포라적 개인서사를 적극 활용했고,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서사는 작품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한국 전쟁을 통해 디아스포라를 경험했던 대중들이 자신의 체험과 더불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거기에 당대 사회상황과 맞물려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협지』가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디아스포라’을 구사했음을 밝혔고, 기존의 무협소설 장르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광주, 『정협지』(전 6권), 생각의나무, 2002.
이진원, 『한국무협소설사』, 채륜, 2008.
임성래 외,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2000.
케빈 캐너, 『디아스포라 이즈is』, 최역석 역, 앤피, 2016.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편, 『아시아와 디아스포라』, 지금여기, 2009.
_____, 『이주, 이동, 교류의 문화연구와 지역연구』, 지금여기, 2010.
두디피아(doopedia) 두산백과.

2. 논문과 단행본

- 강민정, 『한·중 무협서사에 드러난 추방의 디아스포라 재현 의미 연구』, 『한국문예 창작』 제8권 제3호, 2009, 181-204쪽.
고 훈,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9호, 2013, 165-190쪽.
김은하, 『김광주 문학연구(1932-1953)－상해 체험의 문학적 변용과 아나키즘 수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노승욱, 『황순원 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지형도(地形圖)』, 『한국근대문학연구』 31집, 2015, 121-158쪽.
서봉언·이채문, 『키워드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 동향』, 『디아스포라연구』 제6권 제1호, 2014, 43-69쪽.
임춘성, 『이주와 디아스포라－중국 영화에 재현된 뉴욕의 중국인』, 『아시아와 디아스포라』, 지금여기, 2009.
정동보, 『무협소설』,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1999.
조성면, 『김광주의 정협지와 1960년대 대중문화』, 『한국학연구』 제20집, 2009, 203-229쪽.
진선영, 『김광주 초기소설의 디아스포라 글쓰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5, 2013, 303-322쪽.
한명환, 『무협소설의 환상성 고찰』, 『현대소설연구』 12, 2000, 65-87쪽.

Abstract

A Study on The *Jeong Hyup Ji* Concerning a Strategy for Securing Popularity — Focused on Diaspora

Ko, Hoon(Yonsei University)

In 1961, Kim Gwang-ju published a series of *Jeong Hyup Ji* in "The Kyunghyang Shinmun". At that time, Muhyeop Novels were unfamiliar to the public. Hong Kong's martial arts films were already known, but they were not Muhyeop novels. From then on, Kim Gwang-ju made a fresh start as a Muhyeop novel writer.

The novel *Jeong Hyup Ji* is a popular approach to a genre that was unfamiliar to the public until 1960. Research into Kim's early works is well underway. However, research on Muhyeop Novels is lacking.

Looking into the genre of 'Muhyeop' novels,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y have elements of the diaspora.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is point and these tasks will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So f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regarding the diaspora, but no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aspora and the genre of Muhyeop novels. This work may also be meaningful in that it expands the biased Diaspora research to the side of popular literature.

Jeong Hyup Ji is based on the character's personal narrative structure and adds interesting stories within it such as those about rivalry, rivalry in love, and the search for treasure. It was a strategy that would win popularity. In addition, the readers' experience of diaspora was combined, causing a synergy effect and achieving commercial success.

(Keywords: Kim Gwang-ju, Kyunghyang Shinmun, *Jeong Hyup Ji*, Muhyeop Novel, Diaspora, Strategy for Securing Popularity)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9일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3일